

## 도리이 (鳥居)

7m 높이의 이 도리이는 1926년에 즉위한 쇼와 천황을 기념하며 1928년에 세워졌습니다. 도리이에 달린 편액(문패)에는 이 신사의 3주신 중 하나인 후쓰노미타마노오카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도리이는 신도(일본의 민속 종교) 신들의 신성한 영역과 속세의 경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도리이를 통과한다는 것은 사찰 및 교회, 모스크, 시나고그(유대교의 교회당) 등의 문을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도리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동굴에서 나오지 않자 많은 신들이 세상에 빛을 되돌리기 위해 닭들을 모아 울게 했는데 그때 닭들이 앓은 화(나무 막대)가 최초의 도리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래를 뒷받침하듯 도리이는 '새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